

선덕효심원 녹색복지숲 조성 완료

전주시, 산림청 녹색자금 1억 4,000만원 지원 받아 방치 공간 휴게시설로 재탄생

전주시가 복지시설 내 방치된 녹지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색복지숲으로 조성했다.

전주시는 올해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녹색자금(복권기금)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선덕효심원 내 녹색복지숲 조성사업이 최근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방치됐던 공간이 시설 이용자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꽃과 열매를 감상하며 쉴 수 있는 녹색 휴게시설로 재탄생했다.

선덕효심원은 치매환자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어르신, 직원 등 130여명이 생활하는 곳이지만, 시설 내의 기존 녹지공간에는 소량의 수목이 계획성 없이 식재되어있을 뿐 치유를 위한 산책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이곳에 느티나무와 배롱나무, 산수유 등 16종의 나무 400여 그루를 식재하고, 황토포장 및 파고라, 야외테이블 등을 설치했다. 또, 선덕효심원은 자부담 500만원을 들여 장마철 폭우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한 녹색쉼터 공간을 만들었다.

시는 새로 조성된 선덕효심원 녹색복지숲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및 중증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연간 2500여명의 이용자들의 치유 공간의 역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통·융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생협력 방안 논의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5일 도청을 방문한 임지선 보해양조그룹대표와 면담을 갖고 도내 복분자의 지속적인 수매에 감사의 말을 전달하고 전라북도와 보해양조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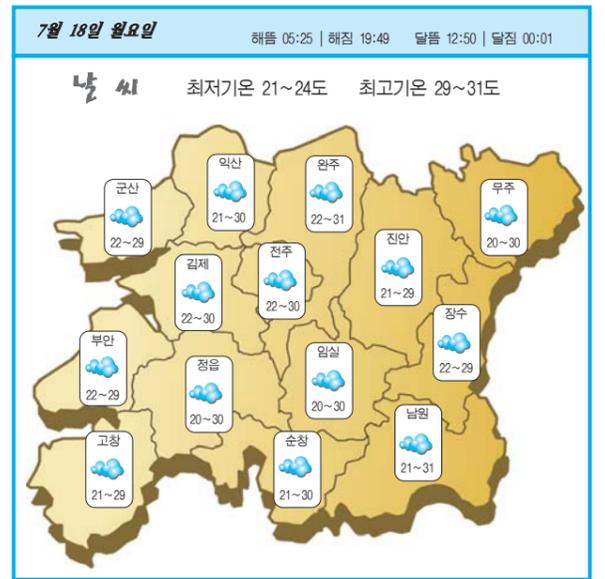
선덕효심원 원장은 "녹지공간이 부족해 산책할 수 있는 치유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성된 나눔숲이 어르신들의 심신 치유기능과 정서 안정,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앞으

로도 도심 내 쾌적한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내 녹색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자금 30억원을 지원받아 전주 사람의 집과 우리너스름, 상예실버홀 등 15개소에 녹색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숲을 조성했다.

/김영재 기자



인권위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율"

"개인정보 보호해야"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 및 파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채용절차 관련 법령과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채용서류 반환 제도란 채용에 지원했으나 떨어진 구직자가 원할 경우 제출했던 관련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담겨있는 내용이 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민간 취업정보 업체의 조사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

도에 불과했다.

다수의 민간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상시채용 등을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상당 기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비공무원 채용공고 88건 중 채용서류 반환 시행률이 12.5%에 그쳐 민간기업보다 낮았다.

이에 인권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채용서류 파기 시점'에 대한 업무 매뉴얼 개정 및 관리, 감독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부문의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시행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했다.

/박용주 기자

전북대 부상돈 교수 등 4인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20여 학술단체·학회로부터 추천받아 분야별 선정

전북대학교는 부상돈(물리학과), 안득수(조경학과), 진성욱(지구환경과학과), 황규남(토목공학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매년 국내 과학기술 관련 320여 개 학술단체와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우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추천된 우수 논문 중에서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들은 각 분야에서 'Best of best'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각 분야 최고의 연구 성과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전북대 교수진의 우수한 연구 경쟁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상돈 교수는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표면에 Pb(Ti,Zr)O3 (PZT) 압전 나노입자를 직접 성장시킨 복합구조물 압전체 시료를 성공적으로 제작, 나노발전기

소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안득수 교수는 '정신병원 치유정원의 음경관 디자인을 위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정신병원 치유정원의 청각적 설계 요소가 환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분석, 치유정원의 음경관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진성욱 교수는 원자력 관련 시설들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지하수 오염물인 Sr-90을 시트르산-인산염 수용액

복합체 방식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오염된 토양의 굴착 없이도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황규남 교수는 '새만금 점착성 퇴적물의 퇴적저면 침식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국내 최초로 자연 상태의 갯벌 점착성 퇴적물로 제작된 퇴적저면에 대해 침식률을 측정하고 산정공식을 제시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민형 기자

기초수급자 내년 1차 의료기관 입원·진료 가능

기초수급자, 내년부터 동네의원 수술·입원 허용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년 이상 중증·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실시하던 연장승인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심

의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개선된 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입원 기준을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매년 연장승인 심의를 받아야 했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심사에서 제외했다.

/안진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16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진안홍삼
鎮安紅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